

「교회와 문화」 51 (2024): 205-41.

## 요한문헌의 섭리,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sup>1</sup>

송영목(고신대학교 신약학)



###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소위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지인의 죽음과 같은 시련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섭리’ (divina providentia)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다.<sup>2</sup> 이집트에 양식을 찾아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도 바로 이

---

<sup>1</sup> 이 글은 한국동남성경연구원, 『성경의 섭리,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SFC 출판부, 2024)에 수록된 원고에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sup>2</sup> 칼빈은 소위 자연재해를 먼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정의로써 심판을 시행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참고, 기독교강요 3.7.10; 칼빈의 시 105:16; 107:39 주석). 재해는 타락한 인간의 범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기인하기에 단지 수동적인 허용 차원이 아니다(참고, 출애굽 전의 열 재앙: 칼빈의 창 3:19, 신 28:15 이하, 슥 14:5, 롬 8:20 주석). 참고, 남아공 프리스테이트대학교의

질문을 한 바 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창 42:28).<sup>3</sup>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 범죄, 그리고 재난과 같은 고통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는 오래된 질문이다.<sup>4</sup>

수수께끼와 같은 이 주제를 두고, 종말이신 예수님에게 주목하면서 언약적 종말론을 주창해 남아공대학교(UNISA)의 아드리오 쾨니히(Ardio König, d. 2022)는 『하나님, 왜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라는 단행본을 출간했다.<sup>5</sup> 인간에게는 주권적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식을 따라 섭리를 시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칼빈).<sup>6</sup> 섭리는 ‘넓은 바다와 같이 가장 놀라운 주제’(츠빙글리)이자, ‘하나님에 관한 진정한 가르침’(셀터르하위스)이며, 신앙에서 가장 놀랍고 중요하고 어려운 교리(스프로울)로서, 성도를 ‘더 높은 영적 단계’와 ‘더 깊은 은혜’로 이끈다(칼빈).<sup>7</sup>

---

P. C. Potgieter, “Natuurrampe en die Voorsienigheid van God, met Besondere Verwysing na die Beskouing van Johannes Calvyn,” *Verbum et Ecclesia* 27/3 (2006), 992-1007.

<sup>3</sup> 참고로 룿기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엘 사다이)의 섭리적 돌봄은 T. R. Wardlaw Jr., “Shaddai, Providence, and the Narrative Structure of Ruth,” *JETS* 58/1 (2015) 31-41을 보라.

<sup>4</sup> 하나님의 섭리라는 화살은 우리의 이해를 종종 넘어선다(삼상 20:21-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읽으려고 시도하기보다, 시험이 닥치면 그분의 사랑을 신뢰해야 한다(시 63:1-4)는 주장은 R. Ellsworth, “When God’s Arrows fall beyond Us: God’s Strange Providence,” *SBIT* 2/3 (1998), 82를 보라.

<sup>5</sup> *God, Waarom lyk die W reld So: Wat Beteken dit om te s God is in Beheer?* (Wellington: Lux Verbi, 2002). 참고로 ‘칼빈의 섭리적 하나님’을 악을 허용하여 방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원죄를 부정하는) 쾨니히(2002)가 비판한 것을 두고 재반박한 경우는 노쓰-웨스트대학교의 M. Diedericks & C. F. C. Coetzee, “Die Voorsienigheidsleer vanuit die Gereformeerde Belydenisskrifte teenoor Adrio König se Voorsienigheidsleer: ’N Dogma-Historiese Beoordeling,” *In die Skriflig* 47/1 (2013), 2-8을 보라.

<sup>6</sup> 참고, 이신열, 『창조와 섭리』(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21), 90.

<sup>7</sup> R. C. Sproul, 『섭리: 스프롤이 답하다』, *Does God control Everything?*, 박예경 역(서울: 넥서스, 2014), 17; 이신열, 『창조와 섭리』, 66, 86, 92.

라틴어 명사 ‘providentia’는 pro(-앞서)와 videre(보다)의 합성어이다. 이 단어는 돌봄, 섭리, 혹은 선견(voorsienigheid)을 뜻한다.<sup>8</sup> 섭리란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필두로 하는 신적 능력의 지속적 행위를 가리키는 데,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탱하시고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다스리시며, 피조물을 그것의 목표점을 향하도록 추동(推動)하신다.<sup>9</sup>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뜻에서 보면, 창조와 섭리는 하나의 행동이다(시 33:6, 11, 13; 115:3).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만유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와 특별 섭리(구원받을 택자를 예정하시고 자연법칙을 초월하여 일하심)로 나뉜다.<sup>10</sup>

한자로 풀이하면, ‘섭리(攝理)’는 손으로 무언가를 당기면서 다스리는 행위이다. ‘밀고당김’의 고수이신 하나님의 손(χείρ)은 깨어지기 쉬운 자기 자녀의 머리카락 한 톨까지 돌보시고(caring) 유지하시고(sustaining) 다스리신다(governing, 마 10:30; 눅 21:18; 참고 행 17:28).<sup>11</sup> 그렇다고 해서 하나

<sup>8</sup> H. L. Gonin and W. J. G. Lubbe, *Lexicon Latin-English* (Pretoria: UNISA, 1987), 234; E. C. Rossman, “A God of Chance or Providence in the Face of Death and Disease,” *Journal of Pastoral Care* 39/2 (1985), 120–26. 참고로 부조리하게 고난 당할 때, 차라리 섭리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는 대표적 주장은 랍비로서 홀로코스트신학을 탐구한 R. L. Rubenstein(d. 2021)에게서 볼 수 있고, 어거스틴과 루터의 타락 후 선택설(infralapsarianism)과 칼빈의 타락 전 선택설(supralapsarianism), 그리고 이중 예정 대신에 구원으로의 예정만 언급하는 루터교의 일지신조(1577)에 관해서는 박영식, “섭리의 신학: 세월호 이후 우리는 신의 섭리에 대해 어떻게 책임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5 (2020), 242–54를 보라. 그런데 서울신대 박영식은 하나님께서 우연(씨줄)과 필연(날줄)을 사용하시고, 눈먼 무목적성의 상징이 아니라 허락된 자유인 우연이 섭리의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sup>9</sup> R.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Grand Rapids: Baker, 1985), 251. 참고로 의아하게도 ‘섭리’를 다루지 않는 사전도 있다. B. Moore and M. Moore, *NTC’s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Origins* (Chicago: NTC Publishing Group, 1997).

<sup>10</sup>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252.

<sup>11</sup> 히브리서에도 이런 섭리가 나타난다. (1) ‘손’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두 손(χείρ)으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원수를 갚고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손(ἄρματα)에 빠져드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히 10:31). (2) 불잡아 지탱하심과 관련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사죄의 사역 후 만유를 불잡으셔서(ἄρπασε) 섭리하신다(히 1:3; 참고, 히 2:16의 ἐνῶπιόν 불들다, 돕다; 2:18의 βοηθῶ 돕다). (3) 섭리가 완성되는 온전함과 관

님은 인형을 놀리는 사람(puppeteer)처럼 인형에 달린 줄을 당겨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조종하시지는 않는다(참고, ‘자유 의지를 가진 제2 원인’).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세밀한 섭리(meticulous providence)를 적극적으로 이루신다(신 11:12; 삼상 2:7; 욥 12:9-10; 시 11:4; 잠 16:9; 롬 8:28).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세밀하게 준비하신다(Deus providebit, 창 22:7). 이에 관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1563) 제10주일의 설명을 들어보자.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偶然)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6) 제5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선함과 지혜로써 만유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셔서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심을 가리킨다(참고, 천주교 교리문답[1992] 301-302).<sup>12</sup>

런하여, 히 2:10에 따르면, *τελειόω*(온전하게 하다)를 통해, 만유가 성부를 위해 존재하며, 성부로 말미암은 예수님께서 성부의 많은 아들 즉 교회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 (구원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또한 히브리서에 적어도 19회 이상 나타나는 구약 인용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사실을 뒷받침한다. 혹자는 히브리서의 구약 인용의 기준으로 인용 문구, 확인 가능한 자료의 출처, 유사한 어휘, 그리고 구문적 긴장과 차이를 제시한다. 그러나 구문적 긴장과 차이는 암시에 가깝다. 참고, M. D. Cooper, “To Quote or Not to Quote?: Categorizing Quotations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JSN* 44/3 (2022), 460.

<sup>12</su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1을 들어보자.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동들과 기타 모든 일(시 135:6; 욥 38-41; 단 4:34-35; 행 17:25-26:28)을 크건 작건 간에(마 10:29-31; 느 9:6), 그 분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의하여(잠 15:3; 시 104:24) 유지하시며(골 1:17)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다스리신다. 그 분은 이처럼 섭리하시되, 그 분의 오류 없는 예지(시 94:9, 10-11; 행 15:15-18)와 자유롭고 동요 없는 그 분의 임의적(任意的) 계획대로 하신다(엡 1:11; 시 33:10-11). 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사전』은 섭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예지와 공급하심인데, 라틴어 ‘providentia’에서 유래했다. 대체로 이 단어는 실제로 자연과 인간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예지와 다스림을 가리킨다.”<sup>13</sup>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잠시 주의를 기울여 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궁극적 비참이며, 가장 복된 삶은 섭리를 아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기독교강요 1.17.11).<sup>14</sup> 그러므로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주사위를 굴리지 않으며, 사람도 자기 삶을 요행이나 운명에 맡겨서는 안 된다(참고 기독교강요 1.16.2; 벨직신앙고백서[1561] 13).<sup>15</sup> 참고로 ChatGPT는 섭리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그리스어 단어 *πρόνοια*는 신약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신적 섭리, 돌보심, 인도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 기초 주제이고 다양한 그리스어 용어로 표현된다. *θεία πρόνοια*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데, 기독교 문헌에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ἐμπροσθέν* 또는 *ἐμπροσθεν*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이라는 맥락에 나타난다.<sup>16</sup>

것은 결국 그 분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공휼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시 145:7; 창 45:7; 사 63:14; 롬 9:17; 엡 3:10).” 그리고 벨직신앙고백서 13과 성부의 아들과 연합된 교회는 성부의 섭리적 돌봄의 대상임을 밝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제9-10주일도 참고하라. 참고, 남아공 노쓰-웨스트대학교의 C. F. C. Coetzee, “The Doctrine of Providence in the *Institutes* of Calvin: Still Relevant?” *In die Skriflig* 44 (2010), 161.

<sup>13</sup> A. Richardson and J. Bowden (ed),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479.

<sup>14</sup> 성부의 섭리적 돌보심의 절정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며, 그 구원은 만유의 갱신과 통치로 이어진다(히 1:3). Coetzee, “The Doctrine of Providence in the *Institutes* of Calvin: Still Relevant?” 151-57.

<sup>15</sup> 존 파이퍼는 섭리를 ‘하나님의 합목적적(purposeful) 주권’이라 부른다(사 46:10). 즉 하나님은 목적을 주권적으로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기쁨이 충만해 진다(WLC 1).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허락하시든지 직접 개입하시든지 간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하신 것만 실현된다. J. Piper, 『섭리, Providence』, 홍명룡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1), 41, 58, 69, 737.

<sup>16</sup> <https://chat.openai.com/c/11c5b73e-d740-4fb1-ad9c-27b243a9592d>

ChatGPT는 동사 ἐπιμελέομαι를 신적 돌봄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동사는 환자나 교회를 돌보라는 의미이다(눅 10:34; 딤후 3:5). 그리고 부사 ἐπιμελῶς는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라는 뜻이다(눅 15:8). 다시 말해, 이 동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을 돌보고, 감독(장로) 후보자는 자기 가정을 돌보는 문맥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 부사는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집중해서 찾는 맥락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 두 그리스어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지 않는다.<sup>17</sup> 그리고 ChatGPT는 πρόνοια가 신약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사도 행전 24:2와 로마서 13:14에 로마 총독의 선견(先見)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준비라는 의미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약성경에 2회 등장하는 명사 πρόνοια는 하나님의 섭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sup>18</sup>

위의 섭리에 관한 간략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은 요한문헌의 섭리를 제2 성전 시기 유대교와 그레코-로마세계의 섭리와 비교한 후에, ‘신적 필연성’(ἰσχύς)과<sup>19</sup> ‘손’(χεῖρ)을 중심으로 살핀다. 마지막으로 본

(2023년 11월 17일 접속).

<sup>17</sup> 참고, F. Montanari, *The Brill Dictionary of Ancient Greek* (Leiden: Brill, 2015), 777.

<sup>18</sup> 신약성경에서 동사 προῶ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미리 아는 것이나 주의를 기울여 돌보는 것을 뜻한다(롬 12:17; 고후 8:21; 딤후 5:8). J. D. Douglas, 『새성경 사전, *New Bible Dictionary*, 나용화 외 역 (서울: CLC, 1996), 830. 참고로 세속 헬라어 문헌에서 προῶ는 신적 섭리를 가리켰다(Hippolytus의 *Haeresium* 1.21.1). 참고, Montanari, *The Brill Dictionary of Ancient Greek*, 1778.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섭리와 관련하여 고려할 만한 기타 그리스어 단어는 다음과 같다. ‘미리 알다’(προμύσσω, 롬 8:29; 11:2; 뱀전 1:20), ‘미리 앎’(προμύσας, 행 2:23; 뱀전 1:2), 그리고 ‘미리 정하다’(προρίζω, 행 4:28; 롬 8:29; 고전 2:7; 엡 1:5, 11). C. Brown (ed), *NIDNTT*, Volume 1 (Grand Rapids: Zondervan, 1986), 692–95.

<sup>19</sup> 누가-행전은 다양한 용어로 이른바 ‘신학적 결정주의’(theological determinism)를 표현한다. 전지사 προ와 연결된 복합단어(행 2:23; 4:28[‘손’과 ‘목책’과 함께 등장함]), ῥάσως 결정하다; 눅 22:22; 요한문헌에는 등장하지 않음), ῥάσως(예정하다, 두다; 행 1:7), ῥάσως(지명하다; 행 22:10; 요한문헌에는 등장하지 않음), ῥά(반드시 해야

연구는 섭리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 1. 제2 성전 시기 유대교의 섭리

BC 2세기 초 작품인 토빗 13:2와 33:15는 “지존자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라 ……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설명한다. 토빗은 바벨론 포로, 실명(失明)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과 같은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질서 정연하게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설명한다(참고 롬 8:28).<sup>20</sup>

피르케 아보트 3:15에서 랍비 아키바(d. AD 135)는 “모든 것은 예견되어 있지만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하나님은 세상을 은혜롭게 심판하시나 모든 것은 행위의 풍성함에 따른다”라고 밝혔다. 이 문구는 한 편으로는 하나님의 예견과 은혜를,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행위를 강조한다. 제사장 가문 출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37-c. 100)에 따르면, 이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혹은 운명)과 인간의 의지가 서로 협력한다는 바리새인의 섭리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유대고대사 18:13).<sup>21</sup> 바리새인과 달리

한다; 눅 2:49; 4:43; 19:5; 행 17:3 등; 누가-행전에 40회 등장함), *ἐκείνου* (막 발생하다; 눅 9:31; 참고 계 10:4), *βούλη* (목적, 계획; 눅 7:29-30; 행 2:23; 13:36; 요한문헌에는 등장하지 않음), 그리고 *ἐντολή* (뜻; 눅 12:47; 행 21:14; 참고 요일 5:14).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일하심을 강조한다(눅 1:66; 23:46; 행 4:30; 11:21; 13:11; 참고 7:35). C. H. Cosgrove, “The Divine *ἐκείνου* in Luke-Acts: Investigations into the Lukan Understanding of God’s Providence,” *Novum Testamentum* 26/2 (1984), 170-74, 184; P. Schreiner, 『사도행전』, *Acts*, 김명일 역 (부산: 기드논 숲, 2024), 123; 송영목, “누가복음의 *ἐκείνου* 용례 분석,” 『교회와 문화』 38 (2017), 54-77.

<sup>20</sup> 참고 R. S. Schellenberg, “Suspense, Simultaneity, and Divine Providence in the Book of Tobit,” *JBL* 130/2 (2011), 313, 324-27.

<sup>21</sup> 요세푸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운명을 ‘영원히 명령된 사실’ (eternally

사두개인은 운명을 거부하고 인간의 의지와 결정만 강조했다면, 에센파는 운명을 모든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보았기에, 바리새인은 이 두 파의 중간 입장에 섰다.<sup>22</sup> 유대교는 한 지붕 여러 가족이었기에, 그들의 섭리 사상도 획일적이지 않았다.

예수님 당시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필로(BC 20-AD 50)는 ‘섭리에 관하여’(Περὶ πρόνοιας, De providentia)는 아르메니아어로 보존된 후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2.18.6은 필로가 이해한 섭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본질의 양에 관해서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풍부하고 충분하여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이 없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 나는 세상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확한 양의 재료로 제작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모든 부분이 완전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철저히 잘 만들어졌을 수도 없고, 완전한 본질로 완전해지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재료가 정확히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자신의 기술에 능숙한 장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장인이 예술 활동을 할 때, 때로는 너무 적게 추가하고 때로는 너무 많이 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과잉된 양의 어떤 것도 공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정확성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정교한 조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은 지혜의 임무입니다.<sup>23</sup>

ordered chain)이라고 본 스토아학과와 같은 헬라인을 염두에 두고 ‘운명’이라고 표기한 듯하다. 초기 스토아학파는 운명을 제우스, 신, 자연, 혹은 이성(로고스)과 동의어로 보았다. 참고, S. Hultgren, “Rabbi Akiba on Divine Providence and Human Freedom: ‘Abot 3:15–16 and ‘Abot de Rabbi Nathan (B) 22:13–15,” *Jewish Studies Quarterly* 18 (2011), 107, 125.

<sup>22</sup> Hultgren, “Rabbi Akiba on Divine Providence and Human Freedom,” 124.

<sup>23</sup> 다음 두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http://www.earlyjewishwritings.com/text/philo/book39.html>;

헬레니즘의 창조 사상을 염두에 둔 채, 필로는 지혜로운 장인과 같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정확한 양을 동원하여 가장 적절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필로의 창조 섭리에 관한 진술은 유대교의 섭리 사상을 모두 섭렵하거나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고백은 그 이후 보존과 통치 섭리를 위한 기초가 되기에 중요한 사상이다.

요세푸스는 『유대고대사』 10:278-79에서 세상이 저절로 운영된다고 믿은 에피쿠로스학파를 비판하면서 세상만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혼돈과 파멸과 무로 돌아간다고 밝혔다(참고, 행 5:39의 사람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 힘에 관한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설명).<sup>24</sup> 그런데 요세푸스는 성경에 없는 전설도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바닷가로 밀려온 이집트 군대의 무기를 수거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유대고대사』 2:349). 그리고 친 로마적 역사관을 견지한 요세푸스에게 로마제국이 강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덕분이기에 유대인은 로마제국에 대항하면 안 되었다(『유대고대사』 2:390; 『유대전쟁사』 3:7:3). 하지만 요세푸스는 ‘섭리’ 대신에 (그레코-로마인에게 익숙한) ‘운명’, ‘숙명’, ‘행운’(τύχη)을 자주 사용했다(『유대고대사』 5:367; 『유대전쟁사』 4:297, 622; 6:250; 참고, σύμπτωμα[우연, 불운; 삼상 6:9]; συγκυρία[우연; 눅 10:31]).<sup>25</sup> 요세푸스는 섭리관은 세상을 질서 있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성경 외적 전승과 친 로마적 역사관 그리고 비인

<http://www.earlychristianwritings.com/yonge/book38.html> (2023년 11월 20일 접속).

<sup>24</sup> 참고, 천사무엘, “요세푸스의 역사이해,” 『신학사상』 121 (2003), 238; K. Crabbe, “Being found Fighting against God: Luke’s Gamaliel and Josephus on Human Responses to Divine Providence,” *ZNW* 106/1 (2015), 22.

<sup>25</sup> 참고, 천사무엘, “요세푸스의 역사이해,” 240-45; *BDAG*, 953, 1021.

격적 운명론이 혼재하는 문제를 노출한다.<sup>26</sup>

그리고 유대인에게 섭리는 신정론과 맞물려 있다. 예를 들어, BC 200-AD 200년 동안의 유대교의 교훈을 담은 피르케 아보트(선조들의 어록) 4:19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다.<sup>27</sup>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아웨는 무소 부재하시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정의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 2. 그레코-로마세계의 섭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섭리를 사물에 내재 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보면서도, 신적 섭리와 우연을 모두 인정했다.<sup>28</sup> 그런데 여기서 ‘신적 섭리’란 ‘신의 뜻’과 다르며, 오히려 자연 현상에 가깝다.

다수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운명’이 역사의 과정과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운명은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불가피한 동력과 같았다.<sup>29</sup>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사건을 ‘우연’의 산물로 간주하면서도, 신이 ‘행운’을 가져다줄 것을 소망했다.<sup>30</sup>

<sup>26</sup> Contra Crabbe, “Being found Fighting against God,” 23–24.

<sup>27</sup> 참고, A. Kaplan, “The Judaic View of God,” *Judaism* 33/4 (1984), 407.

<sup>28</sup> 참고, D. Guttman, “Divine Providence: Goals, Hopes and Fear,” *Hakirah* 5 (2007), 118–20.

<sup>29</sup> M. Michael, “Divine Providence or Good Luck?: A Biblical Theology of Providence compared with ‘Chance’ and ‘Good Luck’ in Greco-Roman and African Traditions,” *Africa Journal of Evangelical Theology* 28/1 (2009), 23. 이에 반해, Hultgren은 스토아학파가 운명이 인간의 행동을 강요하지 않고 인간에게 외적 자극을 주어 행동을 촉진한다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도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기보다, 자신의 섭리적 뜻에 반응하도록 사람의 행동을 촉진하신다고 주장한다. Hultgren, “Rabbi Akiba on Divine Providence and Human Freedom,” 135.

<sup>30</sup> Michael, “Divine Providence or Good Luck?” 28–29.

로마인들이 이런 사상을 수용했는데,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행운이 임한다고 믿었다(참고, 로마의 행운의 여신 'Fortuna' [그리스어로는 'Tyche']). 로마의 플리니(Pliny the Elder, AD 23-79)는 목적성이 결여되어 미쳐 보이고 변덕스러운 행운의 여신 Fortuna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온 세계의 모든 장소와 시간에 걸쳐 Fortuna만 도움을 주고, 명령하고, 고소하며, 책망하는데, 자신이 호의를 베풀 때 일관성이 없고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 …… Fortuna의 바퀴(Rota Fortunae) 이미지는 로마제국의 기념물과 동전에 새겨졌는데, 트라얀 황제가 세운 신전의 제사에도 나타난다. 빈부와 황제와 평민을 막론하고 Fortuna는 변화된 삶을 위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때문에 숭배를 받았다. …… Fortuna는 선이건 악이건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관여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활동하는 Fortuna의 전능함은 인생의 성공, 실패, 그리고 예기치 못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sup>31</sup>

따라서 그레코-로마세계에서 신의 구체적인 섭리는 그리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레코-로마제국에서 신의 섭리는 나름 중요했다. BC 3세기에 제우스에게 바쳐진 노래는 이를 잘 보여준다.

세상의 시작은 당신(제우스)과 만유를 다스리는 당신의 법으로부터였습니다. 하늘의 모든 질서가 지구 주위를 돌 때, 당신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지구 위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당신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궁창이건 바다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우매함으로 행한 것은 제외됩니다.<sup>32</sup>

<sup>31</sup> J. A. Reeves, "The Secularization of Chance: Toward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Probability Revolution on Christian Belief in Divine Providence," *Zygon* 50/3 (2015), 607-608.

<sup>32</sup> J. Huggins, "The Providence of God in the Acts of the Apostles," *Scriptura* 113 (2014), 3.

제우스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총괄하여 다스리는 신으로 추앙받았다(참고, 계 1:4).<sup>33</sup> 그리고 로마 신의 이런 섭리 사상은 그의 대리자인 황제의 통치로 이어졌다. 신의 아들로 자처한 황제가 세상만사를 통치한다는 ‘팍스 로마나’는 신의 섭리를 등에 업은 정치구호였다. 그러나 역동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거룩한 뜻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대담하게 무시하는 황제라 할지라도 떨어지는 잎사귀 소리에 가장 쉽게 벌벌 떠는 법이다.

### 3. 요한복음의 섭리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려면, 하나님이 누구이며 무슨 계획을 수립하시고 어떻게 시행하시는가를 살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주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sup>34</sup>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는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구약 본문도 중요하다(요 1:1; 2:17 등).

#### 3.1. 반드시 해야 한다(δεῖ)

<sup>33</sup> 송영목, 『요한계시록 주석』 (서울: SFC출판부, 2023), 88.

<sup>34</sup> AD 2세기 영지주의 문서인 *The Apocryphon of John*(요한의 비밀 계시)은 사도 요한이 성육신의 이유에 관해 질문하자, 구주이자 빛이신 예수님을 ‘만유의 완전한 섭리’, ‘섭리의 기억’, ‘섭리의 성육신’, 그리고 ‘빛의 섭리’라 소개한다. 그리고 섭리로 의인화된 예수님은 어둠과 하데스와 혼돈과 육체의 감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와 유사한 점을 염두에 둔 채 요한복음 서론(요 1:1-18)을 ‘섭리 독백’이라고 간주하는 경우는 노터데임대학교의 M. Waldstein, “The Providence Monologue in the ‘Apocryphon of John’ and the Johannine Prologue,”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3 (1995), 372-405를 보라. *The Apocryphon of John*을 요한학과 중 좌파의 작품으로 간주하는 이런 주장은 요한복음이 영지주의 용어와 사상을 사용하여 반(反)영지주의 복음을 소개했다고 본 볼트만의 주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의 원조처럼 취급할 수 없다.

요한복음에 10회 등장하는 동사  $\delta\epsilon\iota$ 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신적 필연성을 강조한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반드시( $\delta\epsilon\iota$ ) 거듭나야 했다(요 3:7).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은 중생이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구원의 역사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신적 필연성을 알리는 동사는  $\delta\epsilon\iota$ 이다(요 3:30).<sup>35</sup> 세례 요한으로 마치는 옛 언약 시대는 반드시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는 필연적으로 흥해야 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과 영광은 새 시대의 영광을 보여준다. 광야에서 들린 불뱀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3:14; 12:34; 참고, 사 52:13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eta\lambda\kappa\theta\eta\tau\epsilon\alpha\iota$ [들려질 것]이다).<sup>36</sup>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들리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승귀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세상 임금인 사탄을 축출하는 우주적 축귀 사건이다(요 12:31). 이 사실은 오순절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성부 하나님의 ‘정해진 뜻’( $\epsilon\upsilon\kappa\lambda\omicron\mu\epsilon\eta\ \beta\omicron\upsilon\lambda\eta$ )과 ‘미리 아심’( $\pi\rho\acute{o}\gamma\iota\gamma\omicron\varsigma$ )을 따라, 예수님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 못 박아 죽도록 내준 바 되셨다(행 2:2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져 왔다( $\pi\epsilon\tau\acute{\epsilon}\lambda\omicron\sigma\tau\alpha\iota$ [신적수동태], 요 19:30).<sup>37</sup>

<sup>35</sup> BDA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214. 참고로  $\delta\epsilon\iota$ 는 누가-행전에 40회, 요한복음에 10회, 마태복음에 8회, 마가복음과 계시록에 각각 6회 등장한다. C. Jameson, “Divine Necessity ( $\Delta\epsilon\iota$ ) in John’s Conception of Jesus’s Mission: A Response to Peter-Ben Smit,” *Presbyterion* 46/2 (2020), 60, 64–65. Jameson은 요한복음의 구약의 성취도 신적필연성으로 해석한다(참고, 요 10:35; 12:38; 13:18; 15:25; 17:12; 18:19, 31–32; 19:24, 36).

<sup>36</sup> Jameson, “Divine Necessity ( $\Delta\epsilon\iota$ ) in John’s Conception of Jesus’s Mission,” 68–72.

<sup>37</sup> 히브리어 동사 낱말(Niphal)형이 신적수동태로 사용된 경우는 시 22:5, 33:16, 69:14, 사 49:25, 렘 7:10, 욥 3:5, 단 12:1 등이다. 위의 구절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는 맥락이다. E. Jones, “Middle and Passive Voice: Semantic Distinctions of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셨다(요 4:4). 그래야만 사마리아의 수가 도시의 한 여인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20). 하지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3:3, 7) 예배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처럼 성령과 실체(ῥῆμα) 안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4:24; 참고 1:17; 15:1).<sup>38</sup>

때가 아직 낮이므로 성부의 일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9:4). 여기서 성부와 성부의 섭리를 십자가 처형이라는 밤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루시는 성자의 하나됨을 넘어, 하나님과 교회의 연합도 드러난다(참고 14:12).<sup>39</sup>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지 않은 양떼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10:16). 따라서 요한복음의 선교도 신적 필연성으로 설명된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한다(20:9). 예수 그리스도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증명한다. 요한복음 20:9에 수동태 동사 대신 아오리스트 능동태 부정사(ἀναστῆναι)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한다.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주체적으로 친히 섭리하시기 때문이다(2:19-21; 10:17-18; 19:11; 참고 호 6:2; 요 6:39; 14:19).<sup>40</sup>

### 3.2. 손(χεῖρ)

---

the Niphal in Biblical Hebrew,” *ZAW*132/2 (2020), 441–42.

<sup>38</sup> J. R. Michaels, *The Gospel of Joh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10), 254–55.

<sup>39</sup> P. H. R. van Houwelingen, *Johannes: Het Evangelie van het Woord*, CNT (Kampen: Kok, 1997), 208.

<sup>40</sup> Jameson, “Divine Necessity (ΔΕΙ) in John’s Conception of Jesus’s Mission,” 74.

성부는 사랑하시는 성자에게 만유를 그 분의 손에 주셨다(요 3:35; 13:3). 성부의 전권대사이신 예수님은 죄 사함을 통한 구속을 이루시고 만유를 붙드신다(참고, 히 1:3). 요한복음은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을 자주 강조한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유대인들의 계락을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거부하셨다(요 8:6). 신명기 18:15의 선지자 모세의 예언을 성취하신 종말의 대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악인의 궤계를 꿰뚫어 보신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사람들을 만유보다 크신 성부와 성자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요 10:28-29). 성부의 손과 더불어 일하시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신다(참고, 계 1:16). 이 사실은 회당 즉 모세의 제자들과 대결 중이던 하나님의 가족에게 위로와 안전이 되었다.<sup>41</sup>

예수님의 ‘손’의 못 자국은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을 미혹한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면서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표시였다(요 20:25; 참고, 요일 1:1).

### 3.3. 기타

자칭 ‘모세의 제자’ 이자 사탄의 자식인 불신 유대인들은 손으로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 했다(요 8:44; 9:28; 10:39). 누가의 용어로 말하면, 그들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θεμίχου)이었다(행 5:39). 유대인들의 손과 달리, 예수님의 손은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셔서 사람을 먹

<sup>41</sup> Michaels, *The Gospel of John*, 600.

이시고 살리셨다(요 6:11).<sup>42</sup> 그리고 선천성 맹인으로 출생함은 범죄의 결과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는 수단이다(요 9:3). 다시 말해, 이 장애인 맹인은 성부께서 구원의 빛이신 성자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적합했다.<sup>43</sup>

### 3.4. 요약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가족에게 영생을 주심을 강조하면서 ‘기독론적 섭리’를 전면에 내세운다(20:31). 요한복음의 신적필연성은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주적 축귀와 선교와 예배를 강조한다.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은 사탄과 이단으로부터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신다.

## 4. 요한서신의 섭리

요한일서는 요한공동체의 어머니 공동체(Johannine mother community)를 수신자로 삼는다면, 요한이서는 인근의 다른 공동체에게 보내졌고, 요한삼

---

<sup>42</sup>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은 현재완료 동사를 가장 자주 사용한다(예. 요 1:24, 30, 34). 총 878절에서 무려 161회나 등장하는데, 구절 수를 두고 볼 때 약 18%에 해당한다. 요한일서에는 현재완료 동사가 44회 사용되어 구절 대비 48%에 달한다. 현재완료 동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추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완료 동사에 과거의 사건이 사도 요한 당시까지 결과와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sup>43</sup> Van Houwelingen, *Johannes*, 208.

서는 어머니 공동체의 위성(satellite) 공동체에게 보내졌다.<sup>44</sup> 요한복음에 초점화된 회당과의 갈등이 진정된 이후에, 요한서시는 가현설적 기독교론자와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룬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다고 밝힌다(요일 1:1). 이를 통해 요한은 주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가현설을 반박한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매 그 악한 자(사탄)가 그들을(손으로) 만지지도(ἀπώ) 못한다(요일 5:18; 참고, 요 20:17).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θέλημα, 섭리)을 따라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응답된다(요일 5:14). 참고로 성도의 거듭남은 전치사구 ‘하나님으로부터’(ἐκ τοῦ Θεοῦ)와 더불어 신적수동태로 묘사된다(요일 3:9의 γέννηται).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혹은 ‘아들’을 포함하는 전치사구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요한일서는 수직적 영생과 수평적 교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진리 안에서 사랑할 것을 교훈한다(요일 3:11). 참고로 동사 ‘-하는 것은 마땅하다’(ἀφείλω)는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의무 사항 즉 소위 ‘인적필연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2:6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성도도 행해야 함, 3:16은 죽기까지 서로 사랑해야 함, 4:11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함, 요한삼서 1:8은 순회 전도자를 영접해야 함이다(참고, 요 13:14[서로 발을 씻어야 함], 19:7[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죽어 마땅함]; 계 3:15[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뜨거워야 함]).<sup>45</sup>

<sup>44</sup> J. A. du Rand, *Johannine Perspectives* (Johannesburg: Orion, 1997), 66–67.

<sup>45</sup> 기름 부음(요일 2:27) 곧 성령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경륜(philanthropos oikonomia)을 수행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을 지피셔서 성부에게로 이끄는 기독교론적이며 신비로운 여정(journey)을 완수하신다. C. M. Lee, “The Filioque Reconsidered: The Contribution of Gregory of Nyssa and Augustine of Hippo to Contemporary Discussion on the Filioque,” (Th.D. Thesis, Kampen Theological University, 2020), 329.

요한삼서는 교회의 직분자의 권위를 집중해서 다룬다. 요약하면,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손’이나 신적필연성을 알리는 동사는 드물다. 그러나 섭리의 하나님은 가현설 이단으로부터 진리의 공동체인 자기 가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권주의자인 디오드레베의 악행으로부터 자기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신다(요삼 9-10).<sup>46</sup>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섭리하시는 전략 중 하나는 ‘명령과 경고’이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는 사랑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며 중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경고한다(요일 3:14; 4:8, 4:21).<sup>47</sup>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의 전략을 깨닫고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능력 부여를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삶과 능력을 동원해야 한다.<sup>48</sup> 에스더서처럼 요한서신의 경우 섭리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inconspicuous).

## 5. 요한계시록의 섭리

요한계시록은 황제 네로의 박해와 불신 유대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적 섭리를 강조한다(계 12:13). 이를 위해, 삼위 하나님의 섭리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창조주, 통치

<sup>46</sup> 참고, 송영목, 『요한의 눈으로 요한문헌 설교하기』 (서울: SFC출판부, 2023), 81-82.

<sup>47</sup> Piper, 『섭리』, 644-45.

<sup>48</sup> Piper, 『섭리』, 651.

자, 심판자, 그리고 재창조자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예수님의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에 확실하게 드러내는 ‘특별한 품평회장’(particular showground)이다.<sup>49</sup>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극장이라면, 선교적 교회는 주님의 섭리를 현시하는 최고의 품평회장이다.

### 5.1. 반드시 해야 한다(δεῖ)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반드시 속히 사도 요한 당시에 일어나야 한다(계 1:1; 22:6; 참고, 시 70:5). 참 선지자인 요한이 본 하늘 환상은 이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계 4:1). 계시록의 심판시리즈는 출애굽 전의 열 재앙을 연상하는데, 하나님은 악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참고, 압 3:6). 따라서 요한 당시에 성취될 예언을 통해서 1차 독자의 기대감을 높인다.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를 담은 개봉된 두루마리를 먹은 후 반드시 다시 열방을 쳐서 예언해야 한다(10:11; 참고, 1:3; 22:7).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요한이 밧모섬에서 석방된 후에 다시 선교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은 행위에서 존 파이프(J. Piper)는 다음과 같은 적용을 도출한다. “그리스도인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의 실재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지식은 우리의 예배를 북돋우는 만족스런 ‘보배’가 되고, 우리의 희생을 지탱하는 사랑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배가 몰아치는 인생의 파도에 뒤집히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sup>50</sup>

<sup>49</sup> Coetzee, “The Doctrine of Providence in the *Institutes* of Calvin: Still Relevant?” 159.

<sup>50</sup> Piper, 『섭리』, 240.

## 5.2. 손(χείρ)

예수님의 ‘오른손’ (ἐν τῇ δεξιᾷ χειρὶ)에 붙잡힌 일곱 별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사역자들을 상징한다(계 1:16; 참고 시 73:23). 이것은 계시록이 위로의 메시지임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죽은 자처럼 기절한 요한에게 인수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계 1:17).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보좌에 좌정하신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통치계획서이다(계 5:7). 성부의 통치계획서가 성부의 손에서 어린양의 손으로 전달된다(5:7). 예수님을 가리키는 천사의 ‘손’에 성부의 통치 두루마리가 개봉된 채로 쥐어져 있다(10:2, 8, 10). 성부는 성자를 향하여 통치의 섭리를 위임하셨다. 이를 위해 성부는 성자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와 함께 하셨으며, 성부에게 순종하신 성자에게 전권을 넘겨주셨다.<sup>51</sup> 섭리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의 고난에서 지극히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완전한 방식으로 그리고 억누를 수 없이 기뻐하는 것이며, 섭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환희에 찬 선포에 잘 표현되어 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 5:12).”<sup>52</sup>

<sup>51</sup> 삼위 하나님께서 만유와 관계를 맺는 섭리의 의미와 활동은 예수님 이야기에 가장 선명하게 실현된다. 성자는 일상에서 성부의 뜻을 깨달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직전에도 섭리의 성부를 요동하지 않고 신뢰하셨기에(막 14:36),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이자 절정이라 부를 수 있다(예. Edward Schillebeeckx). 참고, E. F. Tupper, “The Providence of God in Christological Perspective,” *Review & Expositor* 82/4 (1985), 579–87.

<sup>52</sup> Piper, 『섭리』, 231–32.

두루마리의 셋째 인봉이 개봉되자 검은 말 탄 자의 손에 저울이 있었다(6:5). 검은색은 기근을 상징하는데,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능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기근과 같은 수단은 의롭고 참되다(계 15:3). 따라서 기근은 ‘악한 수단’이 아니라 ‘필요 수단’이다.<sup>53</sup>

성도의 기도는 천사의 손에 의해 하늘로 올라간다(8:4). 계시록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천사’는 교회를 위해 활동하거나, 환상의 의미를 요한에게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메시지와 심판을 전달하고 시행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는 진리이다.

여섯째 나팔 심판이 시행되지만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9:20).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거스르는 사람의 손은 범죄의 수단이다. 하나님은 범죄자를 심판하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셔서 자신의 은혜를 증명하신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성부에게 구원과 심판을 속히 시행하실 것을 맹세하신다(10:5). 예수님은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알곡을 추수한다(14:14). 힘센 천사로 묘사된 예수님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다(20:1). 크고 붉은 용 즉 사탄은 예수님의 손에 처단된다. 하나님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박해한 로마제국이나 불신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시어 그들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신다(참고 출 7:23; 9:14의 ‘너의 마음’; 시 81:12; 잠 21:1). 하나님은 바다짐승이 한 때 동맹을 맺은 음녀 바벨론을 죽이려는 뜻을 이루도록

<sup>53</sup> J. Moreno, “A Good God in a Wicked World: Considering the Problem of Evil,” *Detroit Baptist Seminary Journal* 22 (2017), 89.

허락하신다(17:13, 17).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죄를 범하도록 섭리하시지 않아도 그들의 본성적인 악으로써 범죄한다.<sup>54</sup>

### 5.3. 기타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재’(παντοκράτωρ)이며 ‘만국의 왕’(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ἐθνῶν)이시다(계 4:8; 15:3; 19:15; 참고 창 17:1). 성부는 만유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셔서 경배를 받으신다(계 4:11; 14:7).<sup>55</sup>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Βασιλεὺς βασιλέων καὶ κύριος κυρίων)이시다(19:16). 성부처럼 예수님은 섭리의 주체이시다.<sup>56</sup> 그래서 하나의 보좌 위에 성부와 어린양께서 함께 계신다. 계시록에서 ‘보좌’와 ‘어린양’은 내러티브 아래에 흐르는 계속 저음(basso ostinato)이다. 예수님은 박해와 고난 중에 있던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 보좌에서 ‘섭리적 통치’(providential rule)를 시행하신다. 계시록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보좌’가 중요한 개념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의지를 강제하면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보여주시지만, 악인들은 대체로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회개하지 않는다(계 16:9, 11; 비교 11:13).

<sup>54</sup> Contra 이집트의 바로 왕을 자유의지가 없는 꼭두각시로 보는 바르 일란대학교의 J. Grossman, “The Structural Paradigm of the Ten Plagues Narrative and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Vetus Testamentum* 64 (2014), 604.

<sup>55</sup> 시편(시 8:8; 104:14, 24-26; 104:25-26; 107:23-32)과 요나서(욥 1:17; 3:7-8; 4:7)에 나타난 인간의 기술(예. 배), 자연 그리고 동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본문성은 벤구리온대학교의 T. Forti, “Of Ships and Seas, and Fish and Beasts: Viewing the Concept of Universal Providence in the Book of Jonah through the Prism of Psalms,” *JSOT* 35/3 (2011), 365-74를 보라.

<sup>56</sup> 참고 이신열, 『창조와 섭리』, 100.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 (μυστήριον)을 교회에게 계시하시면서 섭리하신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힌 일곱 별의 ‘비밀’은 일곱 교회의 일군을 가리킨다(계 1:20).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에 침투하는 천국 복음이다(계 10:7; 11:15).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비밀’도 밝힌다. 바다짐승은 과거·현재·미래를 다스리시는 성부를 불완전하게 패러디한다(계 17:7-8; 참고, 계 1:4).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조, 구원, 심판, 예배를 섭리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기쁜 소식이다(14:6-7). 하나님의 ‘뜻’대로 만유는 창조되었으며 존재한다(4:11). 그러므로 성도는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의 종말론을 견지할 수 있다. 교회가 소망하는 바는 예수님과 성령께서 재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다(21:1, 5). 만유이신 예수님은 황제와 사탄의 종자들을 심판하셔서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만드신다.

보좌 앞의 일곱 영은 보좌 위의 성부와 성자께서 계획하신 선교적 섭리를 완성하신다(4:5; 5:6). 교회에 바로 이런 선교적 성령의 생명과 호흡이 있어야 생명과 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스도 완결적 성령론’(Christotelic Pneumatology) 즉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주하시는 지성소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다(21:16, 25). 지성소 교회는 하루하루 세상에 천국이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22:17).<sup>57</sup>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도록 섭리하시며, 사명자인 그리스도인이 죽는 때도 섭리하신다(계 11:7).

<sup>57</sup> T. J. S. Teer, “The Perfector of All Divine Acts: The Holy Spirit and the Providence of God,” *Bibliotheca Sacra* 708 (2020), 419–20. 참고로 요나단 에드워즈는 19세 때(1723년), 네 생물(계 4:7)을 풍유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실행되는 네 가지 방식으로 이해했다. 즉 소는 사랑, 사자는 힘, 사람은 지혜, 그리고 독수리는 정의를 각각 상징한다고 보았다. 참고, S. J. Stein, “Providence and the Apocalypse in the Early Writings of Jonathan Edwards,” *Early American Literature* 13/3 (1978), 258–59.

성경에서 ‘손’과 더불어 ‘눈’(ὀφθαλμός)도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한다(1:14; 5:6). 예수님의 두 눈은 불꽃 같으며, 성령은 어린양의 얼굴에 있는 ‘일곱 눈’이라 불린다(스 4:10). 그리고 예수님의 ‘발’(πούς)은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시므로, 주님은 로마제국과 유대인의 통치자이시다(계 10:2).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늘 깨어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계 1:4)을 제우스가 폐리디했다. 역사의 주관자를 죽기까지 신뢰한 순교자들이 보기에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동안 휴거만 기다리는 행위는 손쉽고 비겁한 해결책일 뿐이다(계 2:13; 6:10; 12:11).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기도예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계 6:9-10; 8:1-5; 참고 마 21:21; 요 16:24; 요일 5:14-15).

신천신지(계 21:1)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으로서 ‘섭리적 질서’의 표면 아래에 자주 감추어져 온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입증할 것이다(출 34:6-7; 벧후 1:4-7).<sup>58</sup> 하나님은 지복(至福)의 근원이며 자기 백성과 그것을 공유하기를 기뻐하신다(참고, 계시록의 7복).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계 20:12; 22:12). 이러한 미래적 상은 현세에서 건강과 부를 추구하는 번영신학과 다르다(참고, 고전 3:8; 9:18, 24; 엡 6:8; 골 3:24; 딤후 4:8). 이것은 구원이라는 상이 아니라, 성도가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헌신한 데 따른 칭찬이자 선물인데, 이것도 주님의 은혜이다(참고, 고전 15:10).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면서, 교회를 위해 미래에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섭리는 두 가지 그리스어 문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 미래의

<sup>58</sup> T. D. Alexander and B. S. Rosner, 『IVP 성경신학사전』,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권연경 외 역 (서울: IVP, 2004), 746.

일을 과거 동사로 표현하는 예언적 아오리스트는 과거·현재·미래를 다 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함을 보여준다(계 1:4). 그래서 큰 성 음녀 바벨론은 AD 70년에 실제로 무너졌듯이(ἐπικραί)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시점에서 볼 때 속히 무너질 것이다(14:8, 18:2). (2) 신적 수동태도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다. 로마제국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어졌고’ (ἐδόθη),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가 ‘주어졌다’ (ἐδόθη, 13:5). 바다짐승처럼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적 통제 아래에 있다(참고 계 16:19의 음녀가 ‘기억되었다’ ἐμνήσθη; 20:3의 용이 ‘놓여지다’ [λυθῆναι]). 참고로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할 때, ‘성령 안에서’ (ἐν πνεύματι, 1:10; 4:2)와 같은 전치사구도 간과할 수 없다.

#### 5.4. 요약

요한계시록은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게 주어진 위로와 소망의 책이다. 이것은 순교자 귀도 드 브레(d. 1567)가 간파한 진리인데, 아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섭리 교리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데, 그 까닭은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닥치지 않고 오직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배려로써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권세 아래에 두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시며 그 한 올도, 또한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마 10:29-30).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계셔서 그분의 뜻과 허락 없이는 그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벨직신앙고백서 13).

계시록 45장의 천상의 예배 환상은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와 성자를 주목하게 만든다. 그런데 판 드 베이크(A. van de Beek)는 계시록 45장의 두루마리는 권력, 재난, 부정과 고난의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 역사를 다루지만,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양 즉 창조와 역사의 열쇠인 주님 안에서만 고통스런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59</sup> 그러나 판 드 베이크의 주장과 달리, 계시록 45장의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계획서이기에, 세상이 임의로 권력과 재난과 불의를 일삼아서 무질서를 초래했다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보좌 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용과 바다짐승과 땅 짐승의 파멸을 결정해 두셨고, 열방이 치유 받아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나라로 변혁될 것도 결정하셨으며, 이런 섭리의 결정적 증거로 성자의 재림과 ‘격변 평화작용’을 통해 신천신지의 완성도 결정해 놓으셨다(계 21:1; 참고 벧후 3:12-13).<sup>60</sup> 그럼에도 세상에서 문제와 비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마침내 섭리의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이루셔서 마침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sup>61</sup>

<sup>59</sup> 자유대학교의 A. van de Beek, “Suffering in the Perspective of God’s Governance, Eschatology and God’s Council,” *In die Skriflig* 48/1 (2014), 7.

<sup>60</sup> Piper, 『섭리』, 732.

<sup>61</sup> 벨파스트 유니온신학교 교의학교수인 S. N. Williams in Alexander and Rosner, 『IVP 성경신학사전』, 749-50. 참고로 알렉산드리아학파의 대표자인 오리겐(185-253)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성도를 영적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섭리를 이론다고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지는 않는다고 이해했다. 이것은 사도 요한 당시 유대인의 천사관과 유사하다(계 16:5). 그러나 오리겐은 데살로니가전서 주해에서 사도의 설교와 선교를 돕는 천사의 역할과 수호천사 개념을 지지했다. 참고, 안수배, “천사의 나팔 소리에 관한 오리게네스의 해석: 보편사제직의 실현과 하느님의 도우심,” 『가톨릭신학』 36 (2020), 89-96.

마태(마 2:15), 베드로(벧전 1:11)와 바울(고전 10:4; 고후 8:9), 히브리서 기자(히 10:5; 11:26)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처럼(유 1:5), 사도 요한도 구약을 그리스도 완결적으로 종종 해석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활용한다(계 1:5-7; 2:7; 5:5-6). 요한에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성부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과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심이 구약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자 렌즈로 기능한다. 이 사실을 통해, 요한에게 그리스도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 다이아몬드와 같은 절정임을 보여준다.

## 6. 설교를 위한 지침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교회의 보존을 위한 섭리와 맞물리고, 그것은 재창조와 선교적 섭리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무신론과 이신론 그리고 범신론이 확산하는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가? 요한문헌이 가르치는 섭리를 염두에 두고 적용해 보자.

(1) 예배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리는 공동체의 행위이다. 돌봄, 보존, 통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기도와 찬양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가 섭리의 하나님을 기뻐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삼위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가 완수한 사역을 보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대(습 3:17). 아버지는 아들의 탁월한 승리의 업적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마 17:5; 빌 2:9-11). 신랑이신 아들은 자신의 흠 없는 신부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사 62:5). 그리고 성령의 기쁨은 성도를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살전 1:6).<sup>62</sup>

(2)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요행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니라 소망과 겸손과 승리와 감사와 인내의 종말론을 견지할 수 있다.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지만, 신앙이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영위되는 것은 아니다. 신자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에서 나오며, 이 때문에 인간은 철저히 겸손해진다.”<sup>63</sup>

(3) 질병과 죽음에 직면한 성도를 위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우고, 생생한 이미지(예. 손, 발)와 키워드를 활용한 섭리 설교가 적절하다.<sup>64</sup>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과 목적을 증명한다. ……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마다 소망이 있다.”<sup>65</sup>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절망과 우울과 재난의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는 고난에 직면할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악함, 무능, 지혜롭지 못함을 가정하여 낫두리처럼 풀어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sup>66</sup>

(4) 설교자는 신적필연성이라는 섭리 신앙을 가르쳐 회중의 경건을 고양하려는 고상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sup>67</sup>

<sup>62</sup> Piper, 『섭리』, 734.

<sup>63</sup> Alexander and Rosner, 『IVP 성경신학사전』, 749.

<sup>64</sup> 설교자와 성도는 고난의 다양한 원인(도덕악, 자연악, 자발적인 대속적 희생), 고난의 책임자, 하나님의 개입과 현존(섭리), 그리고 고난의 목적(징벌, 회개, 교육, 성화)과 끝을 성경적으로 물어 답해야 한다. 이승진,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35 (2015), 255-82.

<sup>65</sup> C. M. Franklin, “The Cross as Gospel: Speaking of Providence in a Time of Pessimism,” *Journal for Preachers* 3/2 (1980), 9.

<sup>66</sup> Piper, 『섭리』, 307.

<sup>67</sup> 프리스테이트대학교의 Doubell은 섭리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는 고전적 개혁주의(직관적) 모델(칼빈), (2) 범죄가 고난을 초래하기에 회

(5) 설교자는 악하고 무능한 권력자들이 정점에 있는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가?<sup>68</sup>

(6) 예수님의 재림과 완성될 신천신지를 통한 구원의 완성과 기쁨과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돌아보는 섭리 설교가 필요하다면 유익은 무엇인가?

(7) 소위 ‘명목상 그리스도인’(수 2:10의 아웨와 아웨게서 행하신 일을 물렸던 출애굽 2세대; 요 9:28의 자칭 ‘모세의 제자’; 요일 2:19의 요한공동체에서 이탈한 이단; 요삼 1:9의 선교를 방해한 교권주의자인 디오드레베; 계 2:9의 ‘자칭 유대인’(참고 마 3:9)과 ‘가나안 성도’(소속되지 않고 믿는 자)가 증가하는 시대에 섭리 신앙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적극적 신앙과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sup>69</sup>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교회에 소속하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런 사람의 정체성과 실제 현신의 괴리는 심화되기에 명목론(nominalism)에 빠지기 십상이다.참고, 고후

개를 강조하는 변형신학적 은사주의적(감성적) 모델, (3) 하나님의 선함과 전능함을 제쳐두고 개연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모델, 그리고 (4)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묻기보다 악한 구조적 악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해방신학적 모델. 이런 네 부류의 섭리관과 MBTI에 따라 맞춤식 섭리 및 경건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직관적이고 사고적인 사람은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사람이 겪는 현실의 고통과 감성에 더 민감하게 (해방신학적 부류처럼) 주목해야 한다. 참고, F. B. Doubell, “Voorsienigheid, Persoonlikheid en Spiritualiteit: 'N Vier-Kantige Voorsienigheidsleer,” *Acta Theologica Supp* 3 (2002), 50–61을 보라.

<sup>68</sup> 사무엘상하 주석을 집필한 월터 브루거만은 섭리를 “인간 대리자의 의지와 선택을 초월하면서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은폐된 채로 인내하는 가운데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연줄”로 정의하는데, 권력(다윗의 관리력)과 섭리(다윗의 경건)와 성품(다윗의 치유적 인격과 사역)이 치우치지 않고 접맥해야 한다고 본다. W. Brueggemann, 『하나님 나라의 권력투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권력, 섭리, 성품』, *Power, Providence & Personality: Biblical Insight Into Life and Ministry*, 류의근 역 (서울: CLC, 2013), 35, 262.

<sup>69</sup>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40%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절반에 머물렀다(19세 이상 교인 1,000명 대상 설문 조사; 2023년 9월 23일 발표).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94> (2023년 26일 접속).

13:5).<sup>70</sup> 목회자는 요한문헌이 가르치는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가족만 진리의 복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시련과 박해를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섭리 신앙을 심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화를 촉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 죽이기(mortification of sin)가 없다면 그 사람과 명목상 신자의 구분은 사라지고 만다.<sup>71</sup>

참고로 『21세기 찬송가』에서 ‘섭리’ 찬송가는 제78-79장이다. 제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1712)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만 찬미한다(시 19:1-6).<sup>72</sup> 이와 달리, 제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를 통한 구속과 재림 그리고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가사에 담아낸다(참고, 요 14:3; 요일 3:5; 계 14:7; 15:3-5).<sup>73</sup> 물론 ‘섭리’로 분류되

<sup>70</sup>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줄이고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심으려면, 한국 선교사/목회자가 지역 교회와 교회 차원의 대규모 행사 중심의 기존 선교/목회 사역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선교/목회 그리고 선교적 교회에 중점을 더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SFC강령이 밝히듯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생활 원리가 먼저 확립되어야 그다음 ‘교회 중심’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신학 교수는 신학생 가운데도 명목상 크리스천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하고 멘토링을 활용한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S. Kim, “A Reflection on Nominal Christians in Contemporary England: A Non-Diasporic Korean Missionary Perspective,” *Ecclesial Futures* 2/1 (2021), 76–77, 87–95. 영국의 경우, 2001년에 자칭 크리스천이라는 응답은 71.6%였지만, 2011년에는 59.4%, 2018년에는 38%였으며, 2025년에 교회 예배에 출석할 의향을 가진 사람은 5%였다.

<sup>71</sup> 참고, I. MacLeod, “True and Nominal Christians Distinguished: The Works of John Flavel,” *Puritan Reformed Journal* 9/1 (2017), 209–211. 청교도 John Flavel(1628–1691)은 *The Method of Grace*에서 부와 가난은 마치 아이의 손에 있는 칼과 같아서, 부모의 돌봄(섭리)이 없다면 아이가 손가락을 베고 만다고 비유한다. 이런 유비로 부터 플라벨에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섭리 덕분에 그분의 자녀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유익을 얻는다.

<sup>72</sup> 제78장 3절의 ‘마음 귀’는 영어 원문에 따르면 ‘이성의 귀’(reason’s ear)이다. 즉 이성만 제대로 활용해도 자연계시를 통한 창조주의 섭리를 알 수 있다(롬 1:20). 그리고 1절과 3절에 창조주의 ‘손’이 한 번씩 나타난다.

<sup>73</sup> 참고로 『21세기 찬송가』 제79장의 성경 증거 구절은 <https://hymnary.org/hymn/CH4/154>를 보라(2023년 11월 26일 접속).

지 않은 찬송가 중에서 실제로는 섭리를 표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섭리는 복잡한 주제이기에, 정의를 분명히 한 후에 연구하고 설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섭리가 되고, 섭리가 아닌 것은 없게 되고 만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가 겸손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또한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참고문헌

- 박영식. “섭리의 신학: 세월호 이후 우리는 신의 섭리에 대해 어떻게 책임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5 (2020): 239-63.
- 송영목. “누가복음의 δει의 용례 분석.” 『교회와 문화』 38 (2017): 54-77.
- \_\_\_\_\_. 『요한계시록 주석』. 서울: SFC출판부, 2023.
- \_\_\_\_\_. 『요한의 눈으로 요한문헌 설교하기』. 서울: SFC출판부, 2023.
- 안수배. “천사의 나팔 소리에 관한 오리게네스의 해석: 보편사제직의 실현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톨릭신학』 36 (2020): 83-112.
- 이승진.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35 (2015): 252-88.
- 이신열. 『창조와 섭리』. 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21.
- 천사무엘. “요세푸스의 역사이해.” 『신학사상』 121 (2003): 235-55.
- Alexander, T. D. and Rosner, B. S. 『IVP 성경신학사전』.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권연경 외 역. 서울: IVP, 2004.
- BDA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 Brown, C. (ed). *NIDNTT*. Volumes 1-4. Grand Rapids: Zondervan, 1986.
- Brueggemann, W. 『하나님 나라의 권력투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권력, 섭리, 성품』. *Power, Providence & Personality: Biblical Insight Into Life and Ministry*. 류익근 역. 서울: CLC, 2013.

- Coetzee, C. F. C. "The Doctrine of Providence in the *Institutes* of Calvin: Still Relevant?" *In die Skriflig* 44 (2010): 145–66.
- Cooper, M. D. "To Quote or Not to Quote?: Categorizing Quotations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JSNT* 44/3 (2022): 452–468.
- Cosgrove, C. H. "The Divine δῆ in Luke–Acts: Investigations into the Lukan Understanding of God's Providence." *Novum Testamentum* 26/2 (1984): 168–90.
- Crabbe, K. "Being found Fighting against God: Luke's Gamaliel and Josephus on Human Responses to Divine Providence." *ZNW* 106/1 (2015): 21–39.
- Diedericks, M. & Coetzee, C. F. C. "Die Voorsienigheidsleer vanuit die Gereformeerde Belydenisskrifte teenoor Adrio K nig se Voorsienigheidsleer: 'N Dogma–Historiese Beoordeling." *In die Skriflig* 47/1 (2013): 1–9.
- Doubell, F. B. "Voorsienigheid, Persoonlikheid en Spiritualiteit: 'N Vier–Kantige Voorsienigheidsleer." *Acta Theologica Supp* 3 (2002): 48–65.
- Douglas, J. D. 『새성경 사전』. *New Bible Dictionary*. 나용화 외 역. 서울: CLC, 1996.
- Du Rand, J. A. *Johannine Perspectives*. Johannesburg: Orion, 1997.
- Ellsworth, R. "When God's Arrows fall beyond Us: God's Strange Providence." *SBT* 2/3 (1998): 78–83.
- Forti, T. "Of Ships and Seas, and Fish and Beasts: Viewing the Concept of Universal Providence in the Book of Jonah through the Prism of Psalms." *JSOT* 35/3 (2011): 359–74.
- Franklin, C. M. "The Cross as Gospel: Speaking of Providence in a Time of Pessimism." *Journal for Preachers* 3/2 (1980): 4–11.
- Gonin, H. L. and Lubbe, W. J. G. *Lexicon Latin–English*. Pretoria: UNISA, 1987.
- Grossman, J. "The Structural Paradigm of the Ten Plagues Narrative and the Hardening of Pharaoh's Heart." *Vetus Testamentum* 64 (2014): 588–610.
- Guttmann, D. "Divine Providence: Goals, Hopes and Fear." *Hakirah* 5

- (2007): 115–50.
- Huggins, J. “The Providence of God in the Acts of the Apostles.” *Scriptura* 113 (2014): 1–10.
- Hultgren, S. “Rabbi Akiba on Divine Providence and Human Freedom: ‘Abot 3:15–16 and ‘Abot de Rabbi Nathan (B) 22:13–15.” *Jewish Studies Quarterly* 18 (2011): 107–43.
- Jameson, C. “Divine Necessity (ΔΕΙ) in John’s Conception of Jesus’s Mission: A Response to Peter–Ben Smit.” *Presbyterion* 46/2 (2020): 59–78.
- Jones, E. “Middle and Passive Voice: Semantic Distinctions of the Niphal in Biblical Hebrew.” *ZAW* 132/2 (2020): 427–48.
- Kaplan, A. “The Judaic View of God.” *Judaism* 33/4 (1984): 402–415.
- Kim, S. “A Reflection on Nominal Christians in Contemporary England: A Non–Diasporic Korean Missionary Perspective.” *Ecclesial Futures* 2/1 (2021), 75–99.
- Lee, C. M. “The Filioque Reconsidered: The Contribution of Gregory of Nyssa and Augustine of Hippo to Contemporary Discussion on the Filioque.” Th.D. Thesis, Kampen Theological University, 2020.
- MacLeod, I. “True and Nominal Christians Distinguished: The Works of John Flavel.” *Puritan Reformed Journal* 9/1 (2017): 197–212.
- Michael, M. “Divine Providence or Good Luck?: A Biblical Theology of Providence compared with ‘Chance’ and ‘Good Luck’ in Greco–Roman and African Traditions.” *Africa Journal of Evangelical Theology* 28/1 (2009): 23–41.
- Michaels, J. R. *The Gospel of Joh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10.
- Moreno, J. “A Good God in a Wicked World: Considering the Problem of Evil.” *Detroit Baptist Seminary Journal* 22 (2017): 75–90.
- Montanari, F. *The Brill Dictionary of Ancient Greek*. Leiden: Brill, 2015.
- Moore, B. and Moore, M. *NTC’s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Origins*. Chicago: NTC Publishing Group, 1997.
- Muller, R. A.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Grand

Rapids: Baker, 1985.

Piper, J. 『섭리』. *Providence*. 홍명룡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1.

Potgieter, P. C. “Natuurrampe en die Voorsienigheid van God, met Besondere Verwysing na die Beskouing van Johannes Calvyn.” *Verbum et Ecclesia* 27/3 (2006): 986–1011.

Reeves, J. A. “The Secularization of Chance: Toward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Probability Revolution on Christian Belief in Divine Providence.” *Zygon* 50/3 (2015): 604–620.

Richardson, A. and Bowden, J. (ed).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Schellenberg, R. S. “Suspense, Simultaneity, and Divine Providence in the Book of Tobit.” *JBL* 130/2 (2011): 313–27.

Schreiner, P. 『사도행전』. *Acts*. 김명일 역. 부산: 갯드는 숲, 2024.

Sproul, R. C. 『섭리: 스프롤이 답하다』. *Does God control Everything?* 박예경 역. 서울: 넥서스, 2014.

Stein, S. J. “Providence and the Apocalypse in the Early Writings of Jonathan Edwards.” *Early American Literature* 13/3 (1978): 250–67.

Teer, T. J. S. “The Perfeator of All Divine Acts: The Holy Spirit and the Providence of God.” *Bibliotheca Sacra* 708 (2020): 402–421.

Tupper, E. F. “The Providence of God in Christological Perspective.” *Review & Expositor* 82/4 (1985): 579–95.

Van de Beek, A. “Suffering in the Perspective of God’s Governance, Eschatology and God’s Council.” *In die Skriflig* 48/1 (2014): 1–8.

Van Houwelingen, P. H. R. *Johannes: Het Evangelie van het Woord*. CNT. Kampen: Kok, 1997.

Waldstein, M. “The Providence Monologue in the ‘Apocryphon of John’ and the Johannine Prologue.”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3 (1995): 369–405.

\* 부록: “하나님의 손으로 받드시”(요한문헌의 섭리 찬송가)

## 하나님의 손으로 받드시 (요한문헌의 섭리 찬송가)

가사/송영목

곡/정미경

보통 빠르기 (♩ = 80) / 힘있게

1. 주 - 하 나 님 아 버 지 는 예 수 님 의 선 한 손 으 로 새, 자 신  
2. 예 - 수 님의 능 력의 는 높 이 들 마 귀 쫓 겨 나 고, 교 회  
3. 지 - 혜 로운 예 수 님 의 그 손 길 은 거 것 교 만 에 서, 자 신  
4. 높 - 은 보좌 어 린 양 의 오 른 손 에 모든 것 달 렸 으 니, 이 러

(후렴)

의 자 너 들 을 받 드 시 구 원 하 여 영 생 케 하 네 영 원  
는 보 호 받 고 주 님 의 임 재 안 에 배 드 리 네  
의 교 회 들 을 진 리 와 사 랑으 로 보 호 하 시 네  
한 참 소 망 과 위 로 주 복 은 우 리 것 이 네

한 손으로 구 원 을 이루실 우리 주께 만 영 광 과 경 배를

(rit. / 점점 느리게)

영 원 히 영 원 히 돌 린 지 어 다, 할 려 루 야 아 - 멘

## (곡해설)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요한문헌의 섭리 찬송가)

조성: A 장조/ 박자: 4/4/ 프레이즈 형식: A-A'-B-C

이 곡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주 하나님께만 찬송과 경배를 영원히 드린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영광을 찬양하는 송영이다. 이러한 웅장하고 밝은 느낌의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 장조 조성 and 힘찬 행진곡의 4/4 박자를 사용하였다. 프레이즈(phrase)는 전형적인 찬송가 구조로, 각 4마디로 이루어진 4개의 프레이즈가 A-A'-B-C 형식을 띤다. 1&2번째 프레이즈는 앞부분이 비슷하여 쉽게 부를 수 있다. 이 두 프레이즈와는 다른 선율이 후렴인 3&4번째 프레이즈에 나오는데, 이 선율은 곡 진행상 계속되는 느낌이므로 긴 하나의 프레이즈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가사를 음악 안에서 표현하고자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사(1&2번째 줄의 '주', '예수', '자신')에서는 알토 화음 없이 단선율로 표현하였다. 후렴을 제외한 각 절에서 가장 중요한 가사는 2번째 프레이즈 마지막에 나온다. '구원하여 영생케 하네', '임재 안에 예배드리네', '사랑으로 보호하시네', '참 복음은 우리 것이네'. 이러한 가사를 강조하기 위해 높은 음역을 사용하였고, 가사 직전에 짧은 쉼표를 사용하여 주목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가사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후렴에서는 전체적으로 음역이 점점 고조되는데, 이는 '구원'이라는 가사가 주는 일반적 뉘앙스(죽은 자를 살려 일으켜 세움)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사 '우리 주께만 영

광과 경배를 영원히 영원히’ 선율에서는 각 마디가 짧은 쉼표로 시작하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이는 가사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여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거의 같은 선율이 음 상향을 통해 세 번 반복되는데, 이는 가사 ‘우리 주’ 안에 내포되어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린다는 것을 음악적으로 암시하고 있다.